

많은 경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이상의 좀더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자신의 입장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된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감정의 다원성은 관계된 처지의 복잡함과 중요성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서로 상반된 입장의 표출이며, 결국 현실로 드러내는 의식과 무의식의 정리되지 않은 타협의 부조리 때문이다. 특히 인간 스스로 그 결정의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완전하게 가질 수 없는 도덕이나 종교에 근원한 문제는 그 입장의 모호함을 넘어 언급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 자살은 이중 대표적 예에 속한다. 자살의 바탕에는 인간 이성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무의식에 대한 회의와 그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는 타인의 관점을 살피거나 혹은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앞서 그 문제의 근원과 제시에 관하여 문제 자체로서의 의혹을 가지고 문제에 관한 문제로서 되물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금기라는 전제된 이유를 바탕으로 대변된다.

자살은 특수한 종류의 죽음이며 용어의 사전적 의미 *sui*과 *side*로 보자면 폭력의 행위자가 그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배후의 심리에는 서로 다른 몇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양수 속의 안락함을 박탈당하고 수동적 관계로 세상에 놓이는 출생이라는 어려움은 불만에 바탕을 둔 분노로서 산아에게 공격적인 충동을 각인시키고, 자살과 결부되어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변질되어 무의식을 뒤덮는다. 또한 자살 속에 내재된 죽음이라는 본질적 요소는 도덕적 관점 혹은 종교적 입장에 근거하여 판단의 기준을 가지게 되지만 결국 자살을 생각하거나 새도하게 되는 즉, 죽음을 당하고 싶은 마음은 자신의 의식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개인의 처지에 따른 환경과 관련된다. 근세기까지 오직 인간 이성에 가치를 내걸었던 편협했던 우리의 사고는 이성에 관한 회의를 통해 스스로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자살은 명확히 규명할 대상이 아닌 금기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20세기에 접어들어 그 사고의 대상 폭을 확대하여 무의식과 관련된 욕망을 인간 사고의 중요한 요소로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김소희는 이 난제가 가지는 제한된 한계를 결코 자신의 막연한 상상으로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작가는 인간이 보이는 행동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이면을 보이는 자살에 관하여 자신의 어스름한 분석을 보이기보다는 그 사례를 리서치하고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충분히 계산적이며 기획된 준비를 통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이성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초현실적이다. 그것은 마치 꿈 속에서 그려진 아른한 환상의 체험과도 같은 이미지인데 이는 마치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사진 속에 슬쩍 불러들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는 김소희의 작업이 비록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는 삼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를 스트레이트하게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소희의 이미지는 마치 오래되어 낡은 회한의 시간을 담고 있는 듯하다. 아니 그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망가지고 부서져 상처를 가진 듯 쓸쓸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그것은 충동적이거나 심미적인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작가에게 있어 자살은 자크라 킵에서 보듯 불확실한 무의식에 관한 본래적이며 근원적인 결핍이다. 곧 해결할 수도 피할 수도 없어 그 대상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 결국 굴복하는 치유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이기보다는 무의식 속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노마디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소희는 이를 위해 모든 작업에 자신을 대리체험자로 등장시켜 모의자살이라는 형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셀프타이머라는 작위적인 시간의 제어는 자살이 가지는 생의 시간에 관한 자유의사를 생각나게 하며 사진이 찍히는 그 순간 작가는 모의 죽음에 다시 태어나는 의식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물과 매번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의식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결국 스산한 겨울날 김소희의 사진전은 우리에게 한가지 의문만을 남기고 있다. 자살... 그들은 왜 그토록 쓸쓸하고도 은밀한 선택을 해야 했을까.